

스모

전통 의식의 미와 강함



스모경기
(사진제공 : AFLO)

레슬링의 한 형태인 ‘스모’는 일본의 국민 스포츠이다. 선수들의 다채로운 마와시(살바)와 오이초(은행잎 모양)라 불리는 독특한 머리 모양과 함께, ‘스모’는 도호(씨름판), 순위 체제 등, 신도의 종교적 의례와 관련이 있는 전통 관습을 그대로 유지한다. ‘스모’란 한자는 ‘서로 치열하게 겨룬다.’라는 의미이다.

‘스모’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에도 시대(1603~1867) 초기에 이미 프로 스포츠였다. 오늘날 ‘스모’는 고등학교와 대학, 아마추어 연맹의 클럽 등에서 거의 남자들만이 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국내와 해외에서 ‘스모’는 인기있는 프로 스포츠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스모’는 열렬한 스포츠 팬이었던 쇼와 천황에 의해 더욱 유명해졌다. 1955년 5월

대회를 시작으로, 천황은 도쿄에서 열리는 대회 때마다 한 시합을 참석하여 관람하는 관행을 만들었다. 황실의 다른 가족들도 참관하였다. 열정적인 ‘스모’ 팬으로 알려진 4살 된 아이코 공주는 2006년 당시 부모인 나루히토 황태자와 마사코 비와 함께 처음으로 ‘스모’를 관람하였다. 외교관들과 일본을 방문한 외국 고위 인사들도 종종 대회에 초대를 받는다.

시합의 목적

스모는 상대를 도호 밖으로 밀어내거나 발을 제외한 신체 부위를 바닥에 닿게 하면 승리한다. 도호 중앙에서 맞붙기 전에 양 선수는 보통 몇 분 간 낮은 자세에서 팔을 뻗거나, 발

을 구르고 상대를 노려보면서 겨를 준비를 한다. 도호를 정확하기 위해 몇 차례 소금을 공중에 뿌린다.

이러한 긴 준비 과정을 거쳐 맞붙은 시합은 몇 초만에 결정이 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몇 분이 소요되거나 드물게는 도중에 간단한 미즈이리(휴식 시간)를 갖는 경우도 있다.

‘스모’에는 밀거나 도호 밖으로 상대를 들어 던지는 약 82가지의 기술이 있다. 살바를 잡아서 상대를 던지기, 재빨리 옆으로 이동해 상대를 손바닥으로 때려 중심을 잃게 하는 기술, 자신이 도호 밖으로 밀려나기 직전에 도호의 가장자리에 의지해 상대를 돌려 넘기는 기술 등이 있다.

‘스모’는 특히 품위와 평정심으로 관중의 갈채를 받는다.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복이나 비신사적인 행위는 찾아 볼 수 없다. 손바닥을 사용해 상대의 상체를 격렬하게 치는 기술은 허용되지만 주먹을 사용하여 치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가끔 시합에 대한 심판의 판정이 명확하지 못해 심판 위원들이 판정을 재고하는 경우에도 승자나 패자는 미소를 짓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것 외에 다른 감정 표시는 결코 하지 않는다.

반즈케와 순위

프로 ‘스모’ 선수들은 ‘반즈케’(지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히가시’(동부)와 ‘니시’(서부) 선수로 나뉘어진다. 동서의 대기실이 정해져 있으며 이로써 어느 쪽이 먼저 도호에 오를 것인지도 정해진다. 가장 높은 순위는 요코즈나(스모의 최고위), 오제키(스모의 2번째위), 세키와케(스모의 3번째위)이다.

요코즈나는 ‘스모’에서 유일한 영구적 순위이다.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순위가 강등되는 일은 없지만 순위에 걸맞는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은퇴하도록 강요 받는다. 순위 체계가 몇 세기를 걸쳐 내려오는 동안, 단 70명의 선수만이 요코즈나가 되었다. 근대에 가장 훌륭했던 요코즈나로는 0.802의 승률과 69연승을 기록한 후타바야마(요코즈나, 1937-1945)와 총 32개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45연승을 기록한 다이호(1961-1971), 단 30개 대회만에 21

살 2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요코즈나가 된 아케보노(1993-2001), 19살의 나이로 최연소 대회 우승자가 된 다카노하나(1995-2003)가 있다.

‘스모’의 프로 경기에는 체급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체격이 거대한 ‘스모’ 선수가 그보다 훨씬 작은 선수와 대전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체격은 선수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지만 속도나 타이밍, 균형 감각 또한 시합의 결과를 바꾸어 놓는다. 종종 체격이 작고 빠른 선수가 자신보다 큰 상대를 이겨 관객들을 열광시키기도 한다.

스모 선수의 삶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는 대개 시골 지역의 중학교에서 문학생들이 스카우트된다. 문학생의 가족이 동의를 하면 일본 전역의 50개 스모 헤야(도장) 중 한 곳에서 문학생을 받아 들인다. 스모 헤야는 6명에서 30명으로, 은퇴한 스모 선수인 오야카타(지도자)가 관리를 한다. 문학생들은 스모 헤야에서 숙식과 연습을 함께 하며 적은 돈을 받는다. 같은 헤야 선수들끼리는 본 대회에서 시합을 하지 않는다.

문학생의 삶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촉망을 받는 문학생조차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인 세키토리가 오르기까지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약 700 명의 등록된 스모선수 중에서 세키토리가 되는 선수는 단 70명에 불과하다. 세키토리가 된 소수의 선수들은 결혼을 하여 스모헤야 밖에서 산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 선수들에게는 스모 헤야가 ‘스모’인생의 전부를 사는 유일한 집이다. 많은 선수들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를 하여 30대 초반에 스모를 하는 선수는 보기 드물다.

‘스모’ 헤야의 대부분은 도쿄의 동쪽에 위치한다. 최하위권 선수들의 삶은 혹독하다. 그들은 매일 4,5시에 일어나서 마와시를 입고 게이코(연습)를 시작한다. 또한, 순위가 높은 선수들의 심부름도 해야 한다. 순위가 높은 선수들은 늦게까지 자는 특권을 누린다.

게이코에서는 3개의 전통 훈련(시코, 데포, 마타와리)을 한다. 시코는 다리를 번갈아 가며 최대한 높이 올리는 훈련이다. 데포는 손바닥

봉납씨름

도쿄 메이지 신사에서 씨름을 봉납하는 요코즈나 기세노사토의 모습
(사진제공 : 교도통신사)



으로 나무 기둥을 계속해서 치는 훈련이다. 마타와리는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리는 훈련이다. 게이코는 매일 정오 쯤 끝난다. 연습이 끝나면 선수들은 찬코나베(아채와 고기가 듬뿍 든 고칼로리의 찌개)라는 특별한 음식과 장류, 밀반찬, 밥, 맥주 한두 병을 점심 식사로 먹는다. 선수들의 식성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먹은 후에 체중을 늘리기 위해 낮잠을 잔다. 운동과 식사, 수면의 반복으로 150kg이 넘는 선수들이 많고 일부는 체중이 200kg을 넘기도 한다.



창코나베는 스모 선수의 대표적인 식사이다.

대회시합

일본 ‘스모’ 협회의 주최로, 15일 간의 본 대회가 매년 여섯 차례 열린다. 도쿄에서 3개 대회(1, 5, 9월)가 열리고, 나머지는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각각 3, 7, 11월)에서 개최된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선수들은 각 지역을 여행하며 ‘스모’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새로운 문하생을 모집하기 위해 힘쓴다.

첫 번째 ‘스모’ 본 대회 장소인 고쿠기칸은 1909년 도쿄의 료고쿠에 세워졌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고쿠기칸은 근처에 있는 구라마에로 이전을 하여 40년 동안 사용되었다. 1985년 11,000좌석을 완비한 새로운 시설이 원래의 고쿠기칸 근처인 JR 료고쿠역 근처에 지어졌다. ‘스모’는 텔레비전을 통해 오후 4시 경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방송된다. 그러나 하위권 선수의 시합은 이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한다.

본 대회 기간 중에 ‘마쿠노우치’와 ‘쥬료’ 선수들은 15일 동안 매일 한 시합씩을 치른다.

‘마쿠시타’, ‘산단메’, ‘조니단’, ‘조노쿠치’와 같이 지위가 낮은 선수들은 15일 동안 7시합만을 치른다. 선수들은 많은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반 이상의 승리(15전 8승 또는 7전 4승)를 거두면 현 순위를 유지하거나 승급할 수 있다. 대회 우승은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선수에게 돌아간다. 승률이 같으면 결정전에서 승자를 결정한다.

영예와 상

마쿠노우치 시합 직전에 스폰서들은 후원하는 선수에게 포상금을 건 표시로, 법인명이 쓰인 깃발을 들고 도호 주위를 한바퀴 돈다. 깃발이 많을수록 포상금이 많아지며 경기 후 승자에게 주어진다. 승자는 도호 가장자리에서 자세를 취하고 데가타나(수도)라 불리는 감사의 표현을 한 후 상금을 받는다.

대회 우승자는 현금과 트로피, 쌀, 청주 등을 비롯한 여러 부상을 받는다. 대회에서 승률이 높은 오제키 이하의 선수를 대상으로 3가지 특별상이 수여된다.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보수는 요코즈나를 이긴 선수에게 주어지는 ‘긴보시’이다. ‘긴보시’로 선수의 봉급이 인상된다.

국제화

국외에서 처음 스모를 한 것은 해외 일본인 사회의 동포들이었지만, 수십년 전부터는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캐나다, 중국, 한국, 몽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통가, 러시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등에서 젊은 씨름 선수들이 ‘스모’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왔다. 그 중 몇몇 선수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냈다. 1993년에는 하와이에서 온미국인 아케보노가 최고위인 요코즈나에 올랐다.같은 하와이 출신의 무사시마루는 요코즈나로 승격한 두 번째 외국인 스모선수이다. 최근에는 몽고에서 온 선수들이 활약 중이다. 지금까지 제일 큰 성공을 거둔 선수는 아사쇼류와 하쿠호이다. 아사쇼류는 2003년에, 하쿠호는 2007년에 요코즈나가 되었다.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하여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 아사쇼류는 2010년에 은퇴하였으나 같은 몽골 출신의 하루마후지와 가쿠류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요코즈나로 승격하였다.몽골 출신 이외에도 고토오슈(불가리아 출신)가 2005년에, 바루토(에스토니아 출신)가 2010년에 각각 오제키로 승진하였다.

호주나 유럽, 미국, 중국, 한국 등에서 열린 해외 진출 ‘스모’ 대회의 영향으로, 일본 밖에서도 스모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스모도장의 연습 모습
(사진제공 : Photo Kishimoto)

료고쿠 국기관의 내부
도쿄의 료고쿠 국기관은 1만 1000명의 수용능력이 있으며 스모 혼바쇼가 개최된다.

